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해야”

김승수 전주시장, 포용국가 실현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 어르신들이 원활하게 활용 예정 아파트 입주 우선공급 대상자 별도 추가를”

전주시가 정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우선공급 대상자 배정을 건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6일 서울 종합정보청사에 열린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시행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유엔에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국가의 대표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는 복지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기재부 2차관, 법무부 차관, 문체부 1차관, 고용부 차관, 여가부 차관, 국토부 1차관, 국

무 2차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자체인 전주시·부천시·화성시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이 원활하게 케어안심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인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우선공급 대상자로 별도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상 사용목적이 주거용도로 제한된 영구임대주택에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특례’처럼 통합돌봄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별도 특례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보

건의로 △요양 △돌봄 △퇴원 후 재활 △평생교육 등 주거를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선도사업 지역의 노령자 복지주택 등에 이 같은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주변의 조그만 도움만 있어도 자신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르신들이 도움받을 시스템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입원’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며, “전주시가 어르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자원들을 총동원해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작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전주시실공단, 릴레이 고객 간담회 추진

전주시실공단은 체육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릴레이 고객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시설이용객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이용객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배드민턴장, 실내골프장, 인라인롤러경기장, 빙상경기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등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매달 1차례 이상 자리를 마련해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고객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개선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5월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6월 빙상경기장, 7월 인라인롤러경기장을 대상으로 고객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화장실 휴지통 교체부터 ▲체육관 앞 통로 불법주차 통제 ▲실내 방난방기 설치 ▲체육관 창호 교체 ▲실내 트랙 천장 먼지 청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즉시 처리가능한 사항부터 개선했다.

아울러, 공단은 덕진공원, 송하원, 이지골, 주차장 등 기타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도 릴레이 고객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전성환 이사는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용객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한 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수시로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불편사항을 듣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26일 덕진보건소 신축부지인 우이동 3가 747-80번지 일원에서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보건소 건립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하기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권순범 신임 전주지검장 임명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권순범(50·사법연수원 25기) 대검찰청 인공부장이 제66대 전주지검장에 임명됐다.

지난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신규 보



임 및 전보인사(7월 31일자)를 단행했다.

서울 출신인 신임 권 검사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다년간의 형사부와 정책 업무 경험으로 형사 및 기획 분야에 능통하며, 주변으로부터 창의적이고 거시적인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전북경찰청, 오늘부터 맞춤형 정성순찰 진행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전북경찰청은 29일부터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정성치안’ 범죄예방활동을 펼치면서 주민 접촉을 높이는 문안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주민 접촉을 높이는 문안 순찰이란 지역실정에 맞는 가시적 순찰로 경로당, 마을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 등 각종 보호기관에 1일 2개소 방문하는 사회적 약

자를 위한 순찰로서,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1:1 안부를 묻고 직접 다가가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치안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밀착형 정성 순찰이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믿음직한 전북경찰로서 지역경찰 주민밀착형 정성순찰을 생활화하여, 정성(精誠) 치안을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권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평화공공 덕적골2길 ‘치매안심거리’ 지정

전주시는 평화공공단지 아파트 인근 평화동 주민센터에서 사람요양병원까지 730m 구간의 덕적골 2길을 치매안심거리로 지정했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통해 치매가 있어도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공동체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치매안심거리에 마을 주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현판을 설치하고 치매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희망한 △평화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주택관리공단 전주 평화관리소 △전주시노인복지위원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했다.

또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치매환자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있는 인근 상가의 신청을 받아 마트, 미용실, 문구점, 빵집 등 12곳을 ‘덕적골 치매안심 보관관(館)’으로 지정했다. /송효철 기자

덕진보건소 건립 착공식... 2021년 7월 완공 목표

전주시 덕진권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덕진보건소 건립공사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

시는 26일 덕진보건소 신축부지인 우이동 3가 747-80번지 일원에서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진보건소 건립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하기 위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덕진보건소 신축공사는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 7월까지 진행되며, 총 공사비 149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6861㎡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덕진보건소 신축건물에는 진료실과

검사실, 예방접종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덕진보건소에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게 될 열린 치유공간인 테라피 가는 등을 갖추게 된다.

시는 덕진보건소가 신축되면, 어르신과 영유아 등 덕진구 주민들이 멀리 전주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99년 전주시 완산보건소와 덕진보건소를 통합한 이후 갈수록 증가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덕진보건소 신축을 준비해왔다. /송효철 기자

예수병원, 환자안전·감염예방 캠페인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환자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예수병원은 예수병원 직원, 환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예수병원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낙상 등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감소와 환자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는 부채를 이용한 ‘이름을 말해주세요, 등 록번호를 보여주세요.’ SPEAK UP 이벤트와 폭력 없는 안전한 병원 홍보, 나의 안전 다짐 나무, 낙상예방 퀴즈와 ‘감염병 예방은 내손으로, 올바른 손씻기’ 등 다양한 활동과 로비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석이 어려운 입원환자들을 위한 병동 순회 캠페인도 진행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 위생 체험, 감염 퀴즈, 안전주사



체험을 통한 감염 예방 증진활동과 ‘직원이 건강해야, 환자가 안전하다’는 주제로 직접 환자안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더불어, ‘Patient Safety 1st! 환자 확인 Only!’를 주제로 환자안전 다짐 나무, 환자안전 퀴즈와 환자안전 포드존을 만들어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 환자안전 및 감염 예방 캠페인을 통해 예수병원이 환자안전 제일주의를 실천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야호학교 자치 프로젝트

성장 발표회 개최

전주시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한 자치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야호학교는 전주시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이번 야호 성장 나눔 발표회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들 수 있도록 희망자로 TFT를 구성했으며 이 청소년들은 행사 전반에 걸친 내용을 논의하고 진행까지 모두 맡았다.

이번 야호 성장 나눔 발표회에서는 △킬라코드·하이텐션 등 버스킹팀의 축하 공연 △S.V.P(Special Various Pet)팀의 비바리움, 다양한 동물 체험 △근육팽팽팀의 태권비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자치 프로젝트 활동 성과물이 선보였다. /송효철 기자

시민 기증 나무에 ‘족보’ 만들어 공개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 추진 조례 2건 개정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엔 나선 전주시가 시민들이 기증한 나무에 대해서는 족보를 만들어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녹화 확대방안과 지원체계의 근거 등을 담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2건을 개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시민이 기증한 나무에 대해 나무족보를 제작해 투명하게 공개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까지 녹화사업 보조금 대상 확대 △시민들을 시민정원사로 키워내는 교육과정 개설 △노후된 공원과 도시숲의 생태적 개선 등이다.

대표적으로 시는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한 시민들이 손수 기증해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족보를 제작하고,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이 주도하는 녹화사업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녹화사업의 범위와 추진대상을 폭넓게 확대해 녹화사업과 전시활동,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 조성소재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 개인 및 공공건축물 소유자가 공공정원과 옥상·벽면녹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 곳곳에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게 될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전주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관 개설 및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같은해 개정된 조례에는 공원과 도

시설이 조성 후 시간이 경과해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이용율이 저조한 경우에는 시설물 위주의 정비가 아닌 생태숲 등 자연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특색 있는 생태공간으로 개선하는 생태적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송효철 기자

승강기 사고 예방 합동훈련

아파트 등 시민들의 승강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훈련이 실시됐다.

전주시는 지난 26일 평화공공근타운 2단지에서 전북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주완산소방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강기 사고 대응 훈련 및 올바른 승강기 사용방법 교육을 위한 ‘2019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에서는 중대한 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승객구조 시연이 진행됐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지사장 김도완)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승강기 기계 작동 방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소개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지역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이 문화매개인력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지역문화학교’를 운영한다.

문화매개인력은 문화의 소비자이자 제작자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군에서 종사하는 문화매개인력에게 기획, 홍보 등 실무교육을 제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문화의 성장을 도모 할 방침이다.

시군문화매개인력 재교육사업 ‘지역문화학교’는 재단과 진인문화회, 남원 ‘섬진강’과 함께 8월 6일까지 각 20

명씩(진안, 남원) 수강생을 모집하며 문화원·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동가 등 문화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8월 12일(진안), 8월 22일(남원)에 시작하며 월요일과 목요일 지역별 주 1회(총 6회)로 진행된다.

접수 방법과 교육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xt.or.kr) 또는 재단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55)에 확인 할 수 있으며 최종 선발인원은 8월 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